

## 한국전통음식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sup>+</sup>

- 연변 조선족 주부와 한국 주부에 대한 비교적 접근 -

박영선\* · 정영숙\*\*

대구대학교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식품영양전공\*,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2002년 7월 27일 접수)

## Perceptual Dimensions and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Culture<sup>+</sup>

- Comparisons Between Yanbian and Korean Housewives -

Park Young-Sun\* and Chung Young-Sook\*\*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Received July 27, 200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mensions and pattern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patterns between Korean and Yanbian housewives, taking food culture into account. Data were factor and cluster analyzed, and the results revealed two and three different dimensions and patterns for Yanbian and Korean housewives respectively.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perceptual patterns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traditional f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ual patterns between Yanbian and Korean housewives are discussed, and future implications for food as well as nutrition specialists and food marketers are provided.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food, food culture, perceptual dimension, perceptual pattern, Yanbian housewives

### I. 서론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候)에 따라 특별히 차려서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 시식(時食)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생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몇 고비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례 음식과 건국 이래 대대로 이어 내려온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1-3)</sup>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우리는 전통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조선족들은 중

국어라는 특수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횡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sup>4-6)</sup>

이와 같은 전통 식생활 문화의 가치는 첫째, 생명유지, 종족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역정의 체험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현대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으며 셋째, 각

+ 이 논문은 2002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대량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문화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각 민족들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문화는 각 나라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문화라 함은 삶의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원들은 식생활에 있어서도 그들 나름의 요구와 기호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의 대부분은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한 나라의 식생활 유형은 곧 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비교하면 한 나라의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성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 행태(behavior & attitude)의 국제적 특성과 여러 나라 식생활 패턴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통해서 식생활의 문화적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변 주부들의 식생활 문화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주부들의 식생활 행태와는 분명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및 잠정적 소비를 형성하는 동기가 개인에 있기보다 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실증적인 검증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의 인식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나라의 특성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문화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축적되기도 하며 소멸되기도 하므로 문화는 풍토에 따라 상이하게 정착된다. 그러므로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standard of comparisons)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준거는 한국 전통음식문화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sup>7)</sup>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식생활의 가치와 그러한 식생활이 형성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해주며 또 한국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정보는 식품영양학계 뿐 아니라 기업 및 산업경영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차원이나 유형에 대한 자료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기업과 산업경영자에게 타민족 소비자들이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수요 뿐 아니라 그 나라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기업의 국제화와 유통시장 개장 등을 비롯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과 경영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 기호의 차이와 소비생활의 상이한 측면으로 인하여 해외시장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비행태 차이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식생활 문화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민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자료를 취급함으로써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문헌의 일부로서 식생활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우리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전 및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질적 민족성을 지녔으면서도 문화적 체계가 다른 배경을 지닌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와 한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을 비교함으로써 이들 주부들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구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알아보고 인식차원 및 유형에 따라 식생활 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생활풍습인 그들의 전통 식문화 양상의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식성(食性)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한국과 중국 연변 주부들이다.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1995년 8월부터 1996년 1월에 걸쳐 연변대학교 朝文學部 학생 10명에게 각각 설문지 20부씩 배당시켜서 조선족 주부 200명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한국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250명을 선정하였고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연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자료의 수집은 2002년 4월~5월에 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4명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1)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Perceptual Dimension)의 규명

양국 주부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의 규명은 인식요인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인식차원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적용했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 요인들 사이의 잠재적인 차원을 규명하는 것일 때, 또 분산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다. 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인들을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하여 묶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들간에 공통적인 요인 또는 인자를 찾아내어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 의해 묶인 공통적인 요인은 Cronbach's  $\alpha$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쳐 요인들의 내적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기본 모델은 아래와 같이 변수  $X_j$ 의 값이  $k$ 개의 공통요인  $F$ 와 직교관계(orthogonal rotation)에 의해 설명된다.

$$X_j = a_{j1}F_1 + a_{j2}F_2 + \dots + a_{jk}F_k + d_jU_j$$

여기서  $a_{jk}$ 는 공통요인  $F_k$ 에 대한 변수  $X_j$ 의 부하값이고  $d_j$ 는 특수요인  $U_j$ 에 대한 부하값이다. 여기서 공통요인에 대한 변수의 요인부하값 제곱의 합은 공통분산비로서 변수  $X_j$ 의 분산이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2)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Perceptual Pattern)의 규명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의 분석에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적용되었다. 군집분석은 인식요인이 유사한 주부들을 실질적인 집단으로 묶는 방법이다. 만약 자료에 요인의 특성이 상이한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면 세 개의 군집이 나타난다. 여기서 각 주부의 인식요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유사한 위치를 가진 주부끼리 묶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주부의 인식점수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었다. 인식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인 주부를 묶는 방법으로는 워드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으며,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묶임 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유형(optimal number of clusters)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한국 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고졸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로 30.9%의 분포를 보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주부도 19.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수는 3인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87.7%로 확대가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변 조선족 주부의 경우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동일하게 34.2%를 기록하였다. 주부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동거 가족수는 4인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77.4%)이 확대가족의 3배 정도를 기록하였다. 주부의 고향은 중국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이 17.9% 남한이 14.4%를 보였다.

1.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차원(Perceptual Dimension)

1) 한국

한국 주부를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을 측정할 7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한 결과와 요인별 측정항목, 각 항목들의 회전 후 요인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 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항목은 스크리 검중(scree test)의 결과 3개의 요인으로

<Table 1> Perceptual Dimension of KTF : Korean Housewiv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Need for development of KTF	0.772		
Impact of KTF on health	0.730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	0.718		
Perception of KTF		0.846	
Perception of KTF table arrangement		0.806	
Need for succession of KTF			0.917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ith foreign food			0.563
Eigenvalue	2.07	1.60	1.18
% of Variance	23.91	22.80	16.84
Cronbach's $\alpha$	0.65	0.60	0.55

Note : KTF means Korean traditional food.

뭉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분산은 63.5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구조가 매우 적극적인 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요인점수가 높은 항목부터 살펴보면 한국전통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에 맞게 즉석식품 등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세 항목 모두가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운데 하나의 차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 1이 '전통성-개발차원' (traditional development dimension)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동차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alpha$ 값은 0.65로 일반적인 신뢰도 기준 0.60을 상회한 수준이다

두 번째 요인의 분산값은 22.80%이며  $\alpha$ 는 0.60이고 1이상의 아이겐 값을 지니고 있다. 이 요인은 두 개의 항목이 내적 일치율을 이루며 한 차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한국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상차림 즉 반상, 돌상, 회갑상, 제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 요인에 포함된 두 항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 요인은 '전통성-인지차원' (traditional recognized dimension)을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한국전통음식을 계승하되 본질적인 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목과 한국전통음식이 외래음식과 비교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각된 항목이 한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요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조적 차원이 '전통성-계승차원' (traditional succession dimension)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연변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은 스크리 검정(scree test)한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뭉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분산은 54.87%였다.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 0.40이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요약한 도표를 살펴보면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29.53%로서 2개의 요인 중 상대적인 설명력이 다소 높았다. 첫 번째 요인은 '전통성-인지차원' (traditional recognized dimension)으로 한국전통음식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반상,

<Table 2> Perceptual Dimension of KTF : Yuanbian Housewives

	Factor 1	Factor 2
Perception of KTF table arrangement	0.857	
Perception of KTF	0.816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ith foreign food	0.494	
Impact of KTF on health		0.762
Need for development of KTF		0.602
Need for succession of KTF		0.581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		0.463
Eigenvalue	2.16	1.13
% of Variance	29.53	25.34
Cronbach's $\alpha$	0.63	0.51

돌상, 회갑상, 제상 등과 같은 한국전통 상차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음식과 비교하여 한국전통음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식품이라고 인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전통음식을 개발·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좋은 점들을 살려 적절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이 현대의 식생활에 맞게 즉석식품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전통성-개발·계승차원' (traditional development & succession dimension)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Perceptual Pattern)

1) 한국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perceptual pattern)을 구체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그림에서 각 층별 간의 기울기 경사도에 따라서 군집수(number of clusters)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리자승법 척도를 이용하여 덴드로그램으로 파악된 군집수를 지정해 준 뒤 분석(quick cluster)을 실행하여 인식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주부들은 3개의 유형 즉 3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3>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244명의 주부들 중 13.8%가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고, 군집 2는 10.2% 그리고 76.0%는 군집 3과 같은 유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은 한국전통음식의 계승의식과 개발될 음식의 선호도를 제외한 한국전통음식 및 상차림에 대한 인지도, 외국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우수성,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3개의 군집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주부들의 인식요인이 유사한 차원(dimension)이 아닌 집단(cluster membership)으로 묶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군집 1에 속한 주부는 요인분석의 전통성-인지차원과 전통성-개발차원이 통합되어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군집 1을 '전통성-인지·개발유형'(traditionally recognized & development pattern)이라 명명할 수 있다.

군집 2에 속한 주부는 군집 1에 속한 주부와는 역으로 한국전통음식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전통음식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5.0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에 속한 주부들이 한국전통음식을 전통성과 본질이 유지된 가운데 그대로 계승되어야 하며 현대성을 가미한 개발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군집 2는 '전통성-계승유형'(traditional succession pattern)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주부의 76%가 속한 군집 3은 특히 한국전통음식의 개발 및 계승에 대한 인식과 만약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즉석식품 등으로 개발된다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요인분석과의 차이점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계승인식(M=5.0)이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에 맞게 개발될 필요성(M=5.0)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집 3은 '전통성-개발·계승유형'(traditional development & succession pattern)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연변

연변 조선족 주부에게 몇 개의 유형 및 집단이 존재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자료에서 2종류의 군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전체 주부 중 52%가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보였고 나머지 48%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음식의 우수성 등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차이 없이 인식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살려 개발하고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항목은 군집 1에 속하는 주부들이 군집 2에 속하는 주부보다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유형간에 인식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에서 변인간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인 또는 인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두 가지의 차원 즉 전통성-계승차원과 전통성-인지차원은 한국 주부와는 달리 연변 주부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의 이름을 요인차원에서 명명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통성-계승유형(traditional succession pattern)' 및 '전통성-인지유형(traditional recognized pattern)'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Table 3> Perceptual Pattern Types of KTF : Korean Housewives

Items	Group		
	1	2	3
Perception of KTF table arrangement	3.2	2.5	2.5
Perception of KTF	3.3	2.4	2.8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ith foreign food	4.3	3.6	4.2
Need for development of KTF	4.9	2.1	5.0
Impact of KTF on health	4.4	3.5	4.3
Need for succession of KTF	2.2	5.0	5.0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	2.8	2.1	3.4
Number of cases	57	42	313

<Table 4> Perceptual Pattern Types of KTF : Yuanbian Housewives

Items	Group	
	1	2
Perception of KTF table arrangement	4	3
Perception of KTF	3	3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ith foreign food	4	4
Need for development of KTF	3	3
Impact of KTF on health	4	3
Need for succession of KTF	5	4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	4	3
Number of cases	103	97

3. 한국 및 연변 주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양국 주부가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다(표 5 참조). 공통점은 전통성-인지차원이 양국 주부의 인식체계에 공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목별 구성체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성 인지항목과 한국 전통음식을 상에 차리는 양식에 대한 개념은 양국 주부의 인식체계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동 항목들 외에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긍정적 측면은 연변 주부에게서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는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긍정적 측면이 전통성-계승지향 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연변의 경우 전통성-개발·계승을 반영하는 4 항목 즉 한국전통음식의 개발에 대한 필요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 동 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즉석식품으로 개발될 경우의 적극적인 선호도가 내적 일치를 이룬 가운데 통합된 한 차원으로 묶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변의 동 차원이 전통성-개발경향과 전통성-계승지향이 분화되어 양 차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국 주부가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가지는 인식구조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연변 주부에 비해서 한국 주부가 전통음식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연변 주부와는 달리 한국 주부는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되는 것과 음식의 전통성이 보유했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이한 차원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연변 주부의 경우 '전통성-개발·계승차원'의 구조적 특성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가장 높은 요인부합값을 가지고 있으며 동 요인이 전통음식의 개발인지도와 계승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한 차원으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 주부에게 내재된 한국전통음식의 민족교육성과 전통적 맥에 대한 전통보존 및 계승의식의 근원이 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한국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국전통음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지유형을 비교해 보면 연변의 경우 전통성-인지유형은 인식차원을 규명하는 요인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성-계승유형은 인식차원에서는 개발 및 계승이 한 차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는 두 차원이 계승이라는 유형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통성-계승차원은 집단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성-인지와 전통성-개발차원은 실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는 군집분석에서는 전통성 개발을 중심으로 인지와 계승이 각기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되어 하나는 전통성-인지·개발유형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성-개발·계승유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의 주부와는 달리 한국의 주부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통성이 유지된 맥락에서 순수한 그대로 계승하자는 집단과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하여 계승하자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Table 5> Comparing Perceptual Dimensions of Korean and Yuanbian Housewives

Korean Dimensions	Yuanbian Dimension
<p><b>Traditional development dimension</b>                      Need for development of KTF                      Impact of KTF on health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 foreign fd.</p>	<p><b>Traditional development &amp; succession dimen.</b>                      Impact of KTF on health.                      Need for development of KTF                      Need for succession of KTF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p>
<p><b>Traditional recognized dimension</b>                      Perception of KTF                      Knowing table arrangement of KTF</p>	<p><b>Traditional recognized dimension</b>                      Perception of KTF table arrangement                      Perception of KTF                      Preference of KTF comparing w foreign fd.</p>
<p><b>Traditional succession dimension</b>                      Need for succession of KTF                      Need for modernization of KTF</p>	

4.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

1) 한국

한국전통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주부들 중 전통성-인지·개발유형과 전통성-계승유형을 가진 주부는 매스컴이나 책, 학원 등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성-개발·계승유형을 가진 주부는 친정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계기로 가정교육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매스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역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맛에 익숙해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맛이 좋아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절시 한국전통음식과 외래음식의 이용도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한국전통음식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높

은 분포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율 자체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명절시 한국전통음식을 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전통성-인지·개발유형이 56.7%인데 비해 전통성-계승유형과 전통성-개발·계승유형은 각각 78.3%와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주 이용하는 후식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응답은 여러 개의 항목에서 인식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참조). 먼저 떡을 이용하는 비율은 세 집단 중 전통성-개발·계승유형이 7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통성-계승유형(71.7%)이며 전통성-인지·개발유형이 6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약과를 후식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전통성-인지·개발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약식과 식혜의 이용율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약식은 25%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식혜의 이용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정과와 화채는 전통성-계승집단에 속하는 주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식의 종류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정의 이용률

<Table 6> Food Culture Tendencies : Korean Housewives

Variables	Trad. recog. & develop.(N=57)	Traditional succession(N=42)	Trad. devel. & succession(N=313)	$\chi^2$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husband's grandmother	2.1	-	3.2	15.6**
husband's mother	22.9	31.3	19.2	
wife's mother	35.4	21.9	50.8	
others (school, book, etc.)	39.6	46.9	26.8	
Interests for traditional food				
taste & preferences	9.5	16.7	25.7	9.7
school education	4.8	4.2	5.0	
family education	45.2	29.2	32.5	
book	4.8	8.3	5.0	
broadcast	19.0	33.3	20.0	
others	16.7	8.3	11.8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6.3	6.9	7.8	9.2
taste	35.4	34.5	30.6	
used to eat	56.3	51.7	60.9	
special way of cooking	2.1	6.9	0.7	
Preparing food for trad. holidays				
Korean traditional food	56.7	78.3	83.1	15.1***
foreign food	43.3	19.6	16.5	
half & half	-	2.2	0.4	

\*p<0.05   \*\*p<0.01

<Table 7> Frequently Used Korean Traditional After Meals : Korean

Items	Trad. recog. & devel.(N=57)	Traditional succession(N=42)	Trad. devel. & succession(N=313)	Sig.
Ttok (rice cake)	67.5	71.7	73.5	***
Yakkwa (honey cake)	9.4	4.2	3.5	*
Yakshik (sweet rice)	25.0	25.0	27.5	n.s.
Shik'ye (sweet rice drink)	53.1	56.3	53.2	n.s.
Sujungga (persimmon juice)	9.4	12.5	11.5	*
Wach'ae (fruits punch)	12.1	15.5	10.6	***
Gangjong (seasme, peanuts & pinenuts cake)	10.0	12.1	10.3	n.s.
Cha (Korean traditional tea)	36.3	45.6	39.9	***

n.s = not significant.

\*p<0.05 \*\*\*p<0.001

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후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녹차를 비롯하여 생강차, 엽차, 구기자차, 모과차, 유자차 등과 같은 한국 특유의 전통 차의 이용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이 4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통성-개발·계승유형으로 이용률이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변

한국 전통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8 참조). 그러나 절대적 비율은 전통성-인지유형보다 전통성-계승유형이 더 높은 경향을 띄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의 부모나 할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응답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학원 및 책 등을 통해서 배웠다는 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에서보다는 전통성-인지유형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여러 계기 중 가정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 자체는 전통성-계승유형이 59.2%로 전통성-인지유형의 48.5%보다 더 높았다. 반면 취미나 관심이 계기가 되었거나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응답률은 전통성-인지유형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성-계승유형에서는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률이 48.5%로 가장 높는데 비해 전통성-인지유형은 맛에 익숙해서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아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양이 좋아서이거나 조리방법이 특이해서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전통성-인지유형보다는 전통성-계승유형에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명절과 행사시 외래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음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에서 더 높았으며 외래음식과 한국 전통음식을 반반씩 이용한다는 비율은 전통성-인지유형에서 더 높은 비율은 나타내었으나 이 둘 두 변인간의 관계의 유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Table 8> Food Culture Tendencies : Yuanbian

Variables	Traditional succession pattern (N=103)	Traditionally recognized pattern (N=97)	$\chi^2$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9.5*
husband's grandmother	6.8	5.2	
husband's mother	21.4	19.6	
wife's mother	61.2	57.7	
others (school, book, etc.)	10.7	17.5	
Interests for traditional food			12.7**
taste & preferences	26.2	33.0	
family education	59.2	48.5	
book	7.8	9.3	
others	6.8	9.3	
Preferring traditional food			8.7*
nutritional factor	9.7	7.2	
taste	48.5	41.2	
used to eat	35.0	46.4	
special way of cooking	6.8	5.2	
Preparing food for trad. holidays			4.7
Korean traditional food	35.9	19.6	
foreign food	-	3.1	
half & half	64.1	77.3	

\*p<0.05 \*\*p<0.01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정도가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통음식 중 자주 이용하는 후식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떡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이 75.7%로 전통성-인지유형의 68.0% 보다 더 높았다(표 9 참조). 그러나 약과의 이용 비율은 오히려 전통성-계승유형보다 전통성-인지유형에서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약식의 이용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이 56.3%인데 비해 전통성-인지유형은 63.9%로 전통성-인지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8%정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식혜의 이용비율은 전통성-계승유형이 전통성-인지유형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유형별로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정과와 화채, 강정 등의 이용비율은 모두 전통성-인지유형보다 전통성-계승유형이 더 높았다. 특히 강정은 전통성-계승유형의 이용비율이 23.3%인데 비해 전통성-인지유형이 8.2%에 불과해 두 집단 간 차이(15.1%)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과와 다식의 이용비율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생강차를 비롯하여 엽차, 녹차, 구기자차, 모과차, 유자차 등과 같은 한국 차의 이용비율 역시 전통성-계승유형과 전통성-인지유형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9> Frequently Used Korean Traditional After Meals : Yuanbian

Items	Traditional succession pattern (N=103)	Traditionally recognized pattern (N=97)	Srg.
Ttok (rice cake)	75.7	68.0	***
Yakkwa (honey cake)	3.9	4.1	n.s
Yakshik (sweet rice)	56.3	63.9	***
Shik'ye (sweet rice drink)	20.4	14.4	***
Wach'ae (fruits punch)	10.3	5.8	*
Gangjong (seasme, peanuts & pinenuts cake)	23.3	8.2	***
Chonggwa (candied vegetable in syrup)	26.2	24.7	n.s.
Tashik (patterned savory cake)	19.4	19.6	n.s.
Cha (tea)	5.8	8.2	n.s.

n.s = not significant.  
\*\*\*p<0.0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부와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을 비교하여 이들이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구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알아보고 인식차원 및 유형에 따라 식생활 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국 주부가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구조가 차원 뿐 아니라 유형에서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주부와 연변 주부의 인식구조가 모두 한 집단을 이루는 동질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이루는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결과와 중요한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주부의 경우 인식차원을 분석한 결과 전통성-인지차원, 전통성-개발차원, 전통성-계승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들 주부들이 가지는 인식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집단 또는 유형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전통성을 인지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집단이 있는데 비해 개발보다는 전통성의 본질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집단 그리고 전통성을 계승하되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 및 문화적 속성에 맞게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인식요인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차원으로 구조화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 파악된 전통성-인지차원과 전통성-계승차원은 주부들의 인식수준이 유사한 집단들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도 거의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유형화되었다. 차이점은 요인분석의 전통성-개발·계승차원이 군집분석에서는 전통성-계승유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과 비교할 경우 인식차원 및 유형의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연변의 전통성-개발·계승차원의 구조적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전통음식의 개발인지와 계승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한 차원으로 묶고 있다. 그리고 연변 주부들의 인식체계가 한국전통음식이 민족 고유의 전통적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통보존 및 계승의식이 건강이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연변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한국전통음식을 알리고 그러한 음식문화를 통해 민족공동체적 정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건강지향적 측면에서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전통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차이점은 연변 조선족 주부들은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 한국은 전통성·개발·계승 집단을 제외한 두 집단 즉 전통성·인지·개발 및 전통성·계승 집단에 속한 주부는 매스컴이나 책, 학원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양국 모두 가정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이 식생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중국에 한국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영양학자들이나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조선족 주부들이 지닌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전통성·계승유형의 인식체계를 가진 주부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다는 점과 한국 전통음식 중 떡과 약식을 선호하고 그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전통음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변은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 유산이 한민족(韓民族)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라는 특수지역이며 또한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북한에 더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로 개방화·서구화된 우리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식생활문화의 전통성은 거주지역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와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 버리거나 퇴적층으로 숨어 버린 것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해외 교포들의 식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식문화의 경우도 조선민족의 선명하고도 풍부한 특색을 바탕으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식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북부 지역의 각 민족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한민족의 전통계승을 소중히 여기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성으로 보아 전통 식생활풍습과 관습이 비교적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중국의 개혁·개방 및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소비의식의 변화, 핵가족

화 및 가정기능의 사회화됨에 따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의 식생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전통성·계승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시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통식품이 지닌 고유성 및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과학화하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중국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더욱 넓은 범위로 우리의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역시 우리의 전통음식을 알리고 계승하는데 있어 매스컴이나 책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전과 같이 할머니나 시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던 대면적 의사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정보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되는 미디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전통음식의 확산은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와 명절시 한국전통음식과 외래음식의 이용도, 그리고 후식으로 자주 이용하는 전통차 및 음식 등도 인식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계승하는데 있어서 인식차원 및 유형에 맞게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1) Shim, Hae Sook, *Community Naming and Population Distribution of China-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4.
- 2) Park, Kyung Whee, *Clothing, Food, and Housing Habit of China-Korean*, Jepmoondang, 1994.
- 3) Yanbian University Press, *Korean Popular Customs*, 1991.
- 4) Lee, Kwang Gyu, *China-Korean - Anthropological Approach*, Ilchogak, 1994.
- 5) Yoo, Chung Gaul and Shim, Hae Sook, *Bakdo Mountain and China-Korean*, Baksan Publication Company, 1993.
- 6) Kwang, Jum Wha, *Yanbian Excursion Guide*, Yanbian University Press, 1992.
- 7) Magrabi, F.M., Chung, Y.S., Cha, S., Yang, S.S., "Culture and Food Consumption",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1991.